

보도일시 (인터넷) 2024. 2. 5.(월) 11:00,
(지면) 2024. 2. 6.(화) 조간

배포 2024. 2. 5.(월) 06:00

동해항-일본 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운항 재개

- 한·일 양국 간 우호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5월 중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일본) 간 항로의 카페리선 운항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동해항과 일본 돗토리현에 있는 사카이미나토항을 오가는 카페리선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기존 선사가 2020년 4월 면허를 반납한 이후 해당 항로의 카페리선 운항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두원상선(주)가 해당 항로 운항을 위해 해상여객운송면허를 신규로 신청하였고,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31일자로 면허를 정식 발급함에 따라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항로에 투입될 선박은 현재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를 주 1회 운항하고 있는 카페리선인 '이스턴드림호(11,478톤)'이며, 두원상선(주)는 5월 중 시범운항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간 카페리선 운항이 재개되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우호 증진은 물론, 관광객과 화물 유치를 통해 양국에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운항 재개에 앞서, 국제여객선과 터미널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여객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광호 (044-200-5718)



이스턴드림호(11,478톤)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